

정치권 '김경준씨 귀국' 공방 가열

신당 “비리 실체 규명되기 직전”
한나라 “특별사면 약속 공작 귀국”

BBK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이 초입기에 들어감에 따라 대선을 35일 앞둔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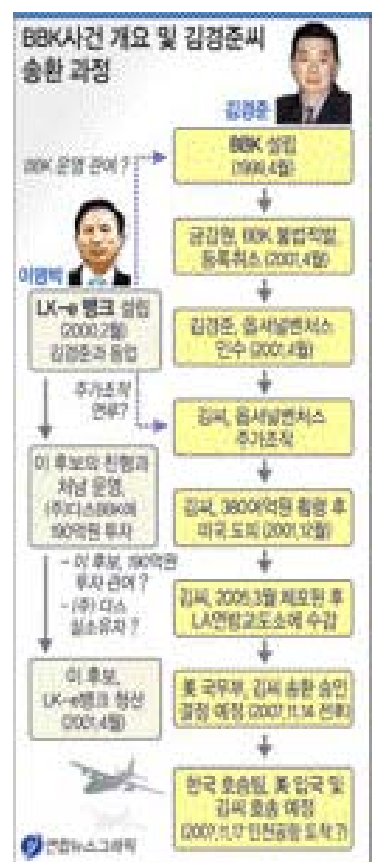
범여권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한 반면, 한나라당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김씨 귀국에 따른 본격적인 대응 태세로 전환, '공작 귀국' 의혹과 '공작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통합민주신당 = 김씨의 귀국과 BBK 수사가 남은 대선 기간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최대 변수 중 하나라고 보고 한나라당과 이 후보를 상대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비리의 실체가 규명되기 직전”이라면서 “한나라당이 거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민란 발언을 하더니 수십만 군중을 동원해서라도 불순한 일이 생기면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과 국민까지 협박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한나라당 협박에 굴해서는 안된다. 당당하게 국민을 믿고 철저히 수사를 해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BK 의혹을 거듭 제기해 온 김종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국 재판 결과를 인용해 김경준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는데 대해 “한나라당이 인용한 판결은 한국검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시 제출한 김경준의 기왕의 혐의를 미국 법원이 그대로 인정된 송환 재판에 관한 절차적 판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 잇단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씨의 '공작 귀국' 의혹과 관련 당사자 색출을 경고하는 등 김씨의 귀국을 앞두고 당과 선대위 전체가 사실상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클린정치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측으로부터) 140억원 소송 취소와 범죄인 인도를 취하해 달라는 협상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면서 “우리 쪽에서 범죄인과의 협상은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공작 귀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왜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 오느냐”면서 “그건 여권과 모종의 특별사면 혐의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클린정치위는 또 BBK와 다스, LKe뱅크, 을지빌딩서비스 등이 모두 이 후보의 소유이고, ‘도곡동 부동산매각 자금’이 다스 투자금으로 흘러갔다’거나 ‘BBK가 망한 것은 이 후보의 정치 행보 때문’이라고 김경준은 피해자’는 등 김경준씨 귀국 이후 예상되는 7대 허위 주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현혹시켜 말 것을 당부했다.

박정호 대변인은 미국 법원의 김경준씨 송환 재판 기록을 공개하며 “미국 법원은 이것이 김경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검찰 “BBK 김경준씨 이르면 오늘 귀국 가능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준씨가 이르면 15일 오후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총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내일 새벽까지 김경준씨가 귀국할 가능성은 없다”며 “(국내·외) 공방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건 들어오듯 (신병을 인도)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씨와 법무부 호송팀은 14일 자정 (현지시간) 즈음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는 국적기에는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 오전 (한국 시간)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장은 또 “김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지 공항에서 이를 집행하겠지만 검찰이 국내의 공항에서 김씨의 신병을 빼돌리거나 하는 등의 방법은 쓰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15일 오후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 일행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 일본 나리타를 경유하는 대한항공편이나 14일 오전 11시55분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또는 낮 12시10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후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노대통령·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의장대 사열



노무현 대통령과 농 득 미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4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 봉합하자 ‘공천 잡음’

신당·민주 일부 공천자 내정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방침에 따라 12·19 재·보궐선거 공천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이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성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14일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13일 당 공천심사위를 열어 장흥군수 후보에 백도선 전 장흥군수, 장성군수 후보에 김홍주 (주)한국전자정보시스템 대표, 해남군수 후보에 정두재 전 광주남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또 광역의원의 경우 동구 제1선거구에 김종민 전 광주시의원, 북구 제3선거구에는 김준수 광주시당 부위원장을, 기초의원에는 나주 가에 김해원 화남농원대표, 영암 가에 최병찬 서남환경 대표, 영광 나에 천영근 법성면 재남방지대책위원장, 함평 가에는 이화동 세계곤충엑스포 추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최종 후보는 오는 16일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후보선정 방식에 반발한 일부 기초단체장 재보선 후보들이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천잡음이 일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는 “중당당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했다”며 “오는 19일에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전라 공천이 이뤄질 경우 이에 반발한 후보들의 연쇄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예상된다.

대통합신당은 단재장과 광역의원 공천자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전남도당은 14일 영광 나에 김영철 영광굴비농협조합장, 영암 라에 김영환 미암한우법인대표, 함평 가에 임윤수 하안나래선지점 대표를 선정, 중앙당에 추천했다.

한편 장성군수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두석 전 장성군수의 부인 이 청(51)씨는 이날 장성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하게 희생된 유 전 군수와 장성군민의 정치적 명에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DJ “국민 선호 후보 올인하면 대선 이길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 “범여권에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사람으로 올인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범여권이 이렇게 올인하면 국민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과거에 두 번 이겼으니

까 또 한번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 단일화가 되면 좋고 그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연합으로, 문국현씨가 포함해서 모두 다 연합으로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며 “실사 (대선 승리가) 안되더라도 최선의 투쟁을 다해 국민적 인정을 받으면 총선 끝나고 나서 통합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한끼 쌀값 200원시대의 농정



이종태
경제부 차장

지난달 10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농협 전남지역 본부를 시작으로 전남도청, 각 시·군청 앞에 속속 쌓여가는 벼더미를 보는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만 간다.

이때 때쯤이면 농민들은 팽과리를 치며 가을걷이를 즐겨줘야 할 시기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처럼 어김없이 가을바람

‘아직시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남본부 앞 아직시위 당시 광주·전남농민대회 회원들은 “자식같은 벼를 아작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심정을 아는가”라며 “생신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정의 실패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쌀은 단순히 사교과는 하나의 상품이기에 우리 민족의 혼이자 피와 살이다. 쌀을 빼놓고 우리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그 쌀이 지금 비닐에 쌓여 비와 찬바람을 맞고 있다. 수개월이 지나면 농협이나 지자체에 매일 배발함용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가공용으로 또 할값에 팔려갈 것이다.

우리 쌀은 우루과이라운드, DDA협상 등에 포위돼 ‘무장해제’ 당한지 이미 오래다. 더욱이 국민소득 증가와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쌀값이 ‘검값’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소비자 한 사람이 하루 한끼 식사에 지출하는 쌀값이 2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쌀은 또다시 푸대접을 받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쌀직불제’에 적용할 수매 목표가격을 올해 정곡(도정한 쌀·80kg) 17만83원보다 8천818원 낮은 16만1천265원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농민들의 ‘아직시위’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전남농민연대는 “국제가구 급등과 비료값·농약값 등 농자재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수매 목표가격을 낮추는 것은 쌀농사를 포기하려는 얘기”라며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17만83원의 목표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올해 300만석에 불과한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1천만석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개방 앞에서 쌀이라고 해서 물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쌀농업의 중요성을 감안, 내년부터라도 농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쌀 직불제는 적어도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을 목표로 하되, 과거 기준기간의 추정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정직불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또 그해의 생산량과 연계된 변동직불방식의 가격지지로부터 벗어나 개방에 따른 가격불안정을 완화해줄 소득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지지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jtlee@kwangju.co.kr

지역사회의 유망분야

현대 테니스장 준공식

국내 최고 수준의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에 지역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치(2007.11.15) / 준공(2007.11.15) / 장소: 현대농업농공단지(해미읍사무소)

현대 테니스장 운영서명

- 현대농업농공단지(주) (대표이사: 김대중)
- 현대농업농공단지(주) (대표이사: 김대중)
- 현대농업농공단지(주) (대표이사: 김대중)

관객안내

- 관객안내: 061-830-1111
- 관객안내: 061-830-1111
- 관객안내: 061-830-1111

현대농업농공단지